

‘알짜점포’ 영등포역사, 롯데 vs 신세계 vs AK ‘3파전’

입찰 마감, 28일 최종낙찰자 선정
롯데, 30년 운영... 전국 5위 점포
신세계, 타임스퀘어 등과 시너지
AK, 수원 등 민자역사 운영 경험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뉴시스

민자역사 중 알짜로 손꼽히는 서울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자리를 두고 롯데·신세계·AK플라자가 맞붙는다.

3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영등포역 상업시설 신규 사용자 선정 공모에서 현 사업자인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AK플라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전 자격심사, 가격입찰 등을 거쳐 오는 28일까지 최종 낙찰자를 정한다. 먼저 예비사업자가 오는 17일까지 입찰가격을 써 내면, 이달 말 최고가 입찰 방식에 따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최대

20년간 영등포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영등포역사는 롯데가 1991년부터

30년 가장 운영해오고 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지하철1호선 영등포역과 연결된 지하 5층~지상 10층 건물이다. 매출규모는 연 5000억원 정도라는 전국 점포 상위 5위권 내에 든다. 롯데쇼핑은 사업권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전망이다. 백화점 업계는 롯데가 우량점포를 지켜내기 위해 상당히 높은 가격을 써낼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롯데와 인천터미널점 사업권을 두고 경쟁한 끝에 롯데에 사업권을 넘겨준 만큼 이번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신세계가 입찰자로 선정되면, 영등포역사 인근 신세계 영등포점과 이마트, 복합쇼핑몰타임스퀘어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롯데가 인천터미널점을 차지하면서 독과점 이슈에 따라

인근 부평·인천점을 매각한 것처럼 신세계가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8월말 구로본점을 폐점하는 AK플라자도 전담 데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현장 탐사를 나가는 등 영등포역사 입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K플라자는 평택과 수원 등에서 민자역사를 운영하는 만큼 경험을 살려 서울에서의 영업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16억 7343만원을 연간 최저 임대료로 제시했다.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오는 17일에 누가 임대료를 더 많이 써내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신규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선정해 6개월간 인수인계 작업을 거친다. 실제 상업시설 운영은 내년 1월부터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기아차 야심작, 새 소형 SUV 차명 ‘셀토스’ 에어프레미아 CEO에 아시아나 출신 홍보전문가

(신규 LCC)

‘헤라클래스’의 강인한 의미 담아



기아차 소형 SUV 셀토스 로고.

기아자동차는 다음 달 출시를 앞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명을 ‘셀토스(SELTOS)’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셀토스는 ‘스피디(Speedy)’와 ‘켈토스(Celtos)’의 합성어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헤라클래스의 아들 켈토스의 용맹하고 도전적인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당당하고 강인한 소형 SUV를 연상시킨다.

기아차는 셀토스를 전 세계에서 동일 차명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기아차는 셀토스를 출시하면 ▲스포티지(준중형 SUV) ▲쏘렌토(중형 SUV) ▲모하비(플러그인 SUV) 등 소형부터 대형까지 아우르는 SUV 라인업을 갖추게 된다.

셀토스는 ‘컴팩트 시그니처’를 핵심 키워드로 개발됐다. 정통 SUV 스타일을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한 외장디자인, 젊은 고급감을 강조한 내장디자인에

편안한 주행성능과 공간감을 갖췄다.

기아차는 셀토스를 이달 인도에서 글로벌 언베일링을 통해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며, 7월 국내 판매를 시작으로 차례로 글로벌 출시를 이어갈 계획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셀토스는 주요 타겟인 당당히 자신을 표현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이미지와 유사하다”며 “대범한 스타일과 젊은 고급감이 돋보이는 하이클래스 소형 SUV 셀토스를 통해 자신감 있는 스타일과 라이프를 완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대표이사 김세영 전 아시아나 상무
공동대표 체제... 이달 중순 정식 취임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가 김세영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홍보담당 상무를 영입하고 각자 대표 체제를 출범한다.

4일 에어프레미아에 따르면 내부논의 끝에 항공업계 경험과 해외 지역에서의 영업 전문성, 전략 및 국제업무 경험 등을 종합해 김세영 신임 대표 영입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에어프레미아의 안전, 운항, 운항통제, 정비 등 20~30년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임원들이 김 대표이사 후보와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김세영 대표이사 후보는 델타, 아시아나항공 등에서 일한 30년 경력의 항공전문가다.

김 대표 후보는 미국 항공사인 델타항공을 시작으로 국책 연구원에서 항공정책 및 물류연구 등을 경험한 이후 줄곧 아시아나항공에 재직하며 전략기



김세영

에어프레미아 대표이사 후보

획, 미주 지역 지점장, 여객 지원 및 국제 업무, 그룹 홍보 등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항공업계 업무를 경험했다. 그는 스포츠 마케팅 및 항공업계 간의 조화를 끌고 나갈 책임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김세영 대표 후보는 대표이사로서 선임되기 위한 임시주총 등 절차를 거치고, 6월 중순경 정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 분야에는 김세영 대표, 투자 유치 및 재무 분야에는 심주엽 대표가 포진함으로써 에어프레미아는 국토부가 신규면허 발급시 가장 강조한 ‘안전’과 ‘재무’에 적합한 경영 체계를 구축한 셈이다. 김세영 대표 후보의 정식 취임 및 등기가 이뤄지면 공식적인 변경 면

허 신청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4월 경영상의 이유로 투자 유치 등 재무 분야 전문가로 심주엽 신임 대표를 추가 선임했지만 김중철 전 대표가 사임하며 에어프레미아는 새로운 대표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왔다.

에어프레미아는 보잉 787-9 신조기 3대에 대한 본 리스계약 완료했고 현재 사업계획서 상에 예정된 운항증명(AOC) 준비와 추가 항공기에 대한 협상을 실시해 사무실 확장 이전, 경력직 채용, UX/UI 설계, IT 시스템 구축 등 주요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앞으로 김세영 신임 대표의 정식 취임에 맞춰 변경면허를 신청하고 AOC 취득 후 2020년 9월 예정대로 취항한다. 국토부는 변경면허 과정에서 신생항공사로써 면허 심사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정연우 기자 ywj964@

위워크에 ‘삼성 텍스’ 운영... “폰으로 일해요”

삼성전자, 모바일 업무환경 제공
전국 15개 지점서 운영, 내달 확대



위워크 종로타워 지점에 운영 중인 ‘삼성 텍스 모바일리티 핫 데스크’ 모습.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위워크와 협력해 위워크에서 ‘삼성 텍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삼성 텍스 모바일리티 핫 데스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핫 데스크존은 위워크의 공용 업무공간이다.

갤럭시 S10 등 최신 갤럭시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위워크 멤버는 메인 커뮤니티 층에 마련된 삼성 텍스 모바일리티 핫 데스크에서 삼성 텍스를 통해 스마트폰을 모니터와 연결해 PC와 같은 환경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삼성 텍스는 지난 2017년 첫 선을 보인 모바일 생산성 향상 솔루션이다.

삼성전자와 위워크는 3일부터 위워

크 종로타워, 을지로, 역삼, 부산 서면 등 전국 15개 지점에서 삼성 텍스 모바일리티 핫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까지 18개 지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워크는 이를 기념해 핫 데스크 멤버십에 가입하면 가입 기간만큼 멤버십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프로모션을 오는 14일까지 진행한다. /구세윤 기자 yun2514@

골라보고 돌려보고... LG유플러스, 5G 게임방송 서비스

5G 고객 대상 ‘LCK’ 생중계

LG유플러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게임방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LG유플러스는 5G 고객을 대상으로 게임방송서비스인 ‘U+게임Live’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오는 5일부터 진행되는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서머리그를 생중계할 계획이다.

리그오브레전드는 월간 접속자가 1억명에 달한다. 올해 LCK 스프링 2019 파이널은 국내에서만 약 150만명이 생중계를 시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LCK 중계를 위해 LG유플러스는 리그오브레전드(LoL) 개발사인 라이엇게임



LG유플러스 직원들이 ‘U+게임Live’를 통해 게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게 지나간 장면을 돌려보는 ‘타임머신’과 ‘슬로비디오’ 기능이 특징이다. 또 기존 대비 세 배 이상 선명한 화질로 시청할 수 있다.

‘타임머신’ 기능을 통하면 생방송 시청 중 ‘킬’, ‘스킬’ 등 중요한 장면을 놓친 경우 다시 돌려볼 수 있고, 빠르게 지나가는 ‘한타(중요한 격전)’의 순간은 ‘슬로비디오’ 기능을 활용해 느린 속도로 자세히 시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U+게임Live’는 5일부터 LG유플러스 전국 주요 직영점에 마련된 체험존에서 이용해 볼 수 있다. 오는 12일부터는 LG유플러스 5G 고객이면 누구나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

즈코리아와 2020년까지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다.

LG유플러스가 새롭게 선보인 5G 게임방송 ‘U+게임Live’는 시청자가 보고 싶은 게이머의 경기화면을 선택해 볼 수 있는 ‘멀티뷰’, 놓친 장면이나 빠르